

## “더 이상 이번은 없다…정상을 향해 달릴 뿐”



D조 멕시코와 이란전에서 멕시코의 첫번째 골을 넣은 포워드 오마르 브라보가 팀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브라질-크로아티아전 (14일 오전 4시)

### 브라질 호나우지뉴 현란한 개인기 기대

‘삼바군단’ 브라질이 월드컵축구 역대 여섯 번째 우승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

브라질은 14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스타디온에서 동유럽의 대표팀 크로아티아와 2006 독일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1958년 첫 우승에 이어 62년, 70년, 94년, 2002년까지 총 5차례 월드컵 정상을 차지한 브라질의 이번 대회 목표는 오로지 우승이다.

브라질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에서 조직력을 갖추는 것보다 정신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며 한껏 여유를 보였다.

그런데도 나머지 본선 진출국 감독들이 하나같이 브라질을 우승후보 ‘0순위’로 꼽을 만큼 대표팀 전력은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피드와 개인기를 겸비한 세계적인 공격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브라질 축구의 키 포인트는 단연 공격이다.

전면에는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와 아드리아누(인터밀란), 호나우지뉴(FC바르셀로나), 카카(AC밀란)가 나서고 좌우 풀백 호베르투 카를루스(레알 마드리드), 카푸(AC밀란)도 적극 공격에 가담한다.

세계 최강자를 첫 상대로 맞은 크로아티

아는 아무래도 실력이 달린다는 평가다.

간판 스트라이커 다도 프르쇼(레인저스)를 내세워 1998년 프랑스 대회 4강 진출 이변을 다시 한번 연출하겠다는 각오지만 최근 대표선수 7~8명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다 즐라트코 크라차르 감독이 아들 니코(하이두크 스플리트)를 선발하며 비난을 받는 등 악재가 겹쳐 불안하다.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견뎌내는지도 지켜볼 일이지만 역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브라질의 세계 최고 공격수들의 현란한 개인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주요 경기 전망

‘승리의 키스’ 퀼론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양골라의 경기 도중 포르투갈을 응원하던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D조 포르투갈과 양골라전에서 1골을 넣은 포르투갈의 파울레타가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우크라이나전 (14일 밤 10시)

### 스페인 토레스 vs 우크라이나 셉첸코 ‘장대결’

페인은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세리에A(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3대 리그로 꼽히는 프리미어리가를 보유했음에도 월드컵에 선화려한 성적을 받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가에서 통산 359승을 올려 명장 반열에 오른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의 지휘 아래 페르난도 토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루이스 가르시아(리버풀), 다비드 비야(발렌시아)가 공격수로 우크라이나 수비진 공략에 나선다.

스페인 대표팀 부동의 골잡이 라울 곤살레스(레알마드리드)이 부상으로 선발에서 빠진게 아쉽지만 22세의 떠오르는 새 별 토레스가 날카로운 창으로 우크라이나 문전

을 위협할 선봉장이다.

조 1위를 다툴 우크라이나는 골잡이 셉첸코의 스페인전 출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솁첸코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서 활약했던 지난 1999년 득점왕을 차지했고 유럽클럽대항전 개인통산 52호골로 스페인 라울(51골)의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던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2004년 ‘유럽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셉첸코는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킥오프부르크와 평가전 때 후반 교체 출전해 1골을 뽑으며 건재를 과시, 스페인전 출격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주요 경기 결과

#### 피구 중원 장악…포르투갈 암도적 우세

##### ■ 앙골라-포르투갈

유럽의 전통 강호 포르투갈이 처녀 출전한 아프리카의 복병 양골라를 힘겹게 누르고 첫 승을 신고했다.

포르투갈은 12일(한국시간) 새벽 월드컵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파울레타의 선제골에 힘입어 양골라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멕시코와 나란히 승점 3점을 챙기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

점했다. 포르투갈은 이란(17일)에 이어 멕시코(21일)와 조 1위를 다투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을 통산 5회 우승으로 이끌었던 ‘명장’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이 한 수 위 실력을 보였다.

포르ту갈은 원톱 파울레타를 중심으로 좌우 미드필더진에 포진한 크리스ти아누 호날두와 루이스 피구가 중원을 장악, 초반부터 기습으로 양골라 문전을 흔들며 암도적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브라보 2골·시나 1골…멕시코 ‘브라보’

##### ■ 멕시코-이란

‘북중미 축구 맹주’ 멕시코가 아시아의 강호 이란과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첫 승리를 챙겼다.

멕시코는 12일(한국시간) 새벽 뉴캐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꺾었다.

월드컵 D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오마르 브라보의 연속골과 시나의 추가골로 1골 만회에 그친 이란은 3-1로 제압했다.

이로써 멕시코는 승점 3점을 올리며 산뜻하게 출발했고 양골라(16일), 포르투갈(21일)과 남은 조별 리그 경기를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네덜란드 로번 좌·우·중앙 누비며 ‘원맨쇼’

##### ■ 세르비아몬테네-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발간의 복병’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물로 첫 승리를 신고하며 ‘죽음의 조’에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네덜란드는 11일(한국시간) 라이프치히의 젠틀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C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꺾었다.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세르비아를 1-0으로 눌렀다.

이로써 8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네덜란드는 ‘죽음의 조’에서 맨 먼저 첫 승리를 수확한 아르헨티나와 나란히 승점 3점을 올리며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네덜란드는 17일 약체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22일 초반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승리의 키스’ 퀼론에서 열린 포르ту갈과 양골라의 경기 도중 포르ту갈을 응원하던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